



세정그룹, 600가구에 주거복지 나눔

세정그룹이 주거·복지·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정그룹은 올해 상반기 600가구를 대상으로 4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전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의 대표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올해로 누적 330가구를 달성했다. 8년째 지속해 온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으로 올해 20여 가구의 주거 개선을 지원했다. /세정그룹



기보, K-푸드 세계화 금융지원 확대

기술보증기금이 한국식품산업협회, NH농협은행과 K-푸드 글로벌 진출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기보는 식품산업협회, 농협은행과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식품산업 협회에서 'K-푸드 글로벌 확산을 위한 푸드테크 기업 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기술을 보유한 식품기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국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보증기금



주금공, 제2기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제2기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2회차를 맞은 주금공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에는 주택금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작 등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전국 대학생 24명이 참여한다. 대학생 서포터즈들은 지난 6일 개최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3개월간 활동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새마을금고, 복지시설 침수 예방 지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수해 취약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차수 및 방수 시공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후 위기로 해마다 심화되는 집중호우와 장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전국 40개소 사회복지시설의 차수관 설치와 비가림막·옥상 방수 시공 등 침수 예방 시설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인사 ◆상주◇5급 전보△충무과장 차형원 △신흥동장 성백률
◆창원시의회 ◇4급 승진△의회사무국 건설해양농림전문위원실 김영현◇5급 승진△의회사무국 의정담당관 정은정

부음 ▲이동춘(향년 88세)씨 별세, 이관상(금호건설 경영관리본부 전무)·혜경씨 부친상, 최인영씨 시부상, 김희준·희영·희주·이예준씨 조부상 = 7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장지 서울추모공원. 02-860-3500

KT, AI·클라우드 실무로 청년 AX 인재 키운다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 모집
AI 개발자·DX 컨설턴트 트랙 운영
9월 말 입교해 840시간 교육 진행

KT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프로그램 'KT 에이블스쿨' 10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에이블스쿨은 KT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영하는 AI·클라우드 기반 실무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2021년 첫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료생 3500명을 배출하며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 왔다.

교육 과정은 9월 말 입교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 중 4년제 대학을 6학기 이상 수료한 사람이다. 모집 기간은 내달 10일까지다.

이번 10기는 AI 개발자 트랙과 DX(디지털 전환) 컨설턴트 트랙으로 운



KT 에이블스쿨 9기 교육생 단체사진.

/KT

영한다. AI 개발자 트랙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DX 컨설턴트 트랙은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육성이 목표다.

총 84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받고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통해 AI 서비스 기획부터 개발, 구현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중심의 운영이 특징이다. 교육생들은 과제 발굴부터 서비스 구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쌓는다. 특히

현직의 KT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코칭과 멘토링에 참여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요구하는 업무 방식과 문제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료를 마치면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채용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에이블스쿨 수료생들은 500여 개 기업에 진출해 AI 개발, 데이터 분석부터 영업, 마케팅,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

KT 인재실장 이선주 전무는 "AX 전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 역량과 실무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KT 에이블스쿨이 축적해 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X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더네이처홀딩스, 브롬톤 자전거 사업 진출

국내 독점 총판 계약 체결
어패럴 넘어 모빌리티 확장

더네이처홀딩스가 브롬톤(BROMPTON)의 국내 자전거 사업을 맡는다. 사업 영역을 자전거까지 넓히며 모빌리티 라이프스타일 시장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브롬톤 런던(BROMPTON LONDON)은 7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브롬톤 런던 2026 프레스 데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네이처홀딩스와 브롬톤이 자전거 한국 총판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브롬톤 런던은 이번 총판 계약을 계기로 어패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자전거 분야까지 확대한다. 플래그십 스토어와 딜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판매망을 넓히고 유통 및 A/S 체계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유승운 더네이처홀딩스 상무는 "딜러 네트워크와 직영리테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Co-Part



'브롬톤 런던 2026 프레스 데이' 기자간담회 현장의 모습. 왼쪽 두번째부터 윌 버틀러 아담스 브롬톤 CEO, 박영준 더네이처홀딩스 대표, 유승운 상무. /김수정 수습기자

nership)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연간 3000~4000대 수준인 브롬톤 자전거 국내 판매량을 600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윌 버틀러 아담스 브롬톤 영국 본사 CEO는 "브롬톤은 단순히 자전거를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가 오랫동안 같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자전거를 수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브랜드 철학"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코웨이, 비렉스 AI 광고·숏폼 공모전

상금 2000만원, 이달 30일까지

코웨이가 총상금 2000만원 규모의 비렉스(BEREX) 'AI 영상 광고·숏폼 공모전'을 연다.

7일 코웨이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비렉스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웨이가 AI 미디어테크 기업 스튜디오프리월루전과 AI 콘텐츠 플랫폼 AI-Kive가 공동 주관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비렉스 대표 제품인 'R7 스트레칭 모션베드'와 '안미의자' '폐블체어' 두 가지다.

지원 분야는 가로형 AI 영상 광고와

세로형 AI 숏폼 두 가지다. 영상 광고는 30초 분량, 숏폼은 10초 이상 1분 미만으로 제작해야 하며 모든 영상은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제작하고 AI 제작 고지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출품은 제품 주제·형식별로 각 1편씩 최대 4편까지 가능하다.

수상작은 코웨이 공식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브랜드 캠페인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며, 우수 참가자에게는 스튜디오프리월루전 인턴십 기회도 제공한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렉스가 선사하는 휴식의 가치가 AI 기술을 만나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되길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세화미술관, 바젤리츠 회고전 예매 시작

20년 만 개인전, 국내 미공개작 중심

태광그룹 세화예술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세화미술관이 독일 신표현주의의 거장으로 평가받는 게오르크 바젤리츠 회고전의 얼리버드 티켓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7월 13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화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사전 예매는 이달 13일부터 가능하다.

세화예술문화재단에 따르면 바젤리츠 개인전이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약 20년 만의 일이다. 작가가 4월 별세한

뒤 열리는 최초의 회고전이기도 하다.

바젤리츠는 1938년 독일 도이치바젤리츠에서 태어난 전후 독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1960년대부터 기존 회화에 전통에 저항하는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했고, 인물과 사물을 거꾸로 배치하는 뒤집힌 회화 화풍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세화미술관은 이번 전시에서 바젤리츠의 1960년대 초기 작업을 시작으로 작고 전 올해 작업한 최근의 작업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내 미공개작을 중심으로 회고전을 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SOOP, 2026 VNL 온라인 독점 생중계

여자부·남자부 주요 경기 순차 중계

SOOP(송)은 국제배구연맹(FIVB)이 주관하는 '2026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 주요 7경기를 온라인 독점 생중계하며 글로벌 배구 콘텐츠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중계는 약 70경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SOOP은 여자부와 남자부 예선 3주차를 비롯해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순차적으로 생중계하며, 일부 경기에는 한국어 해설을 제공해 국내 배구 팬

들의 시청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여자부는 8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예선 3주차와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중계한다. 이어 남자부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선 3주차 경기에 이어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리는 결선 토너먼트 주요 경기를 선보인다.

SOOP은 국제배구연맹 주요 국제대회 온라인 독점 중계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구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ra@

LG U+, 공공 데이터로 음성 스팸 차단

KISA와 업무협약 체결

LG유플러스가 공공 데이터와 협력해 음성 스팸을 방지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 최윤호 그룹장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디지털기반본부 신대규 본부장 등 주

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팸발신번호 차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KISA와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는 게 골자다. 최근 음성 스팸은 보이스 피싱 범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존에 사후 대응 중심의 스팸 차단 방식에서 조기 식별 및 선제적 차단 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민선 기자